

“저탄소 인증 한우 만나요” 무주군, 군민 마음 건강 챙긴다

장수군,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서 ‘장수한우마당’ 운영

장수군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의 안공원과 누리파크에서 열리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에서 명품 장수한우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장수한우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마당은 2,500석 규모의 대형 홀텐트로 마련되어, 방문객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장수의 청명한 가을과 함께 한우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해발 500m 이상 고랭지 청정 고원에서 자란 장수한우는 큰 일교차와 미세라피 풍부한 물 덕분에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탄탄하며 고소하다.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온 장수한우는 이미 국내외에서 명품 한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저탄소한우 산업지구’로 지정받아 기후 변화 대응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축제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저탄소 장수한우를 직접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마련된다.

사료 생산부터 사육, 가공, 유통 전



장수군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안공원과 누리파크에서 열리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에서 명품 장수한우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장수한우마당’을 운영한다.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생산한 장수한우는 맛과 품질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한 가치소비형 먹거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의 미래를 보여줄 예정이다.

아울러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협약을 맺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장수·장계농무진장축협, 장수군유통사업단은 장수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구이용 주요 부위(1+등급 기준)를 100g당 안심 11,900원, 등심 9,900원, 채끝 11,400원에 제공되며, 이 외에도

갈비·토시·치마·부채·제비·국거리·사시미·육회 등 다양한 부위를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올해 장수한우마당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장수의 가을과 명품 장수한우의 진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저탄소 인증 한우를 통한 가치소비 체질까지 더해, 장수한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이자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국가도로망 확충 총력

기재부 찾아 국가계획 반영 요청

무주군이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를 찾아 주요 도로 기반시설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은 이날 허운홍 경북 성주군 부군수와 함께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지역은 이 자리에서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가 △통영~대전 고속



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해 경부축 교통량 분산, △기능 보완에 기여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무주와 성주권의 접근성,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위주 국가간선도로망 체계에 비해 낙후된 동서

축 연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들어 △영·호남 연결성 제고와 △국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무주군은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 사업과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2차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정일 부군수는 “주요 도로 기반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무주군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라며 “무주군의 핵심 인프라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예산 또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도농교류·마을 자원 활용 마을축제 열려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는 19일 마령면 신덕마을에 이어 23일 동향면 새을마을에서 도농교류 및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를 개최한다.

먼저, 19일 마령면 신덕마을에서는 고구마, 더덕, 도라지 등의 마을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체험 및 직거래 장

터, 도농 교류 프로그램,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는 인근 도시인 전주시, 군산시 등지에서 찾아온 도시민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동향면 새을마을에서



마을 농산물인 오미자를 소재로 한 축제가 진행돼 오미자 청 만들기, 띄매치기, 삼국놀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자살예방주간 운영

무주군이 마음 건강을 돌보며 생명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자살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반딧불축제 현장에서는 장기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 희망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전국 합동 캠페인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이 캠페인에는 무주군을 비롯한 전국 125개 지자체와 10개 공공기관, 42개 의료기관 등 177개 기관이 동참했다.

11일에는 무주읍 무주반딧불시장 북카페에서 ‘생명 존중 첫걸음’도 운영했다. 첫걸음에서는 △하루 동안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 퀴즈 풀기 등이 진행됐으며 포스터와 안내문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돼 호응을 얻었다.

19일까지는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생명존중안전심리를 참여 기



관·단체 종사자 및 이용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안부 묻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와 SNS 상담(마들렌_24시간 자살예방 상담 채널) 위기 대응 사회서비스 등이 안내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교와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무주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등을 통해 정서적 취약 계층에게 안부를 전하며 이불을 전달하는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해협 인증 품목 확대

진안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품목을 확대해 지역 농업인의 가공 역량 강화와 가공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소규모 농가의 창업 지원을 위해 장비 등을 지원해주며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돕고 있다.

이에 가공센터는 지난 5월 △인·홍삼음료, △액상차, △과·채가공품, △과·채주스, △고형차, △기타가공품

등 6개 유형에 대해 HACCP 재인증증을 받았다.

이어 올해 9월 ‘캔디류’를 추가 인증받아 가공 가능 품목이 총 7개 유형으로 늘었다.

군은 이번 캔디류 품목 인증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스티커젤리 등의 생선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증 확대도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됐으며, 진안군 농업인들이 보다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레드푸드레이스 in 승마로드’ 20일 개최

장수군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장수 승마로드 일대에서 제19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2025 레드푸드레이스 in 승마로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한우랑사과랑 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관광 융합형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장수군 트레일레이스 기업인 락앤런(대표 김영록)이 주관한다.

대회는 장수의 대표 레드푸드를 테마로 오미자 5km, 토마토 10km, 사과 16km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총 300여 명(선수 270명, 운영스텝 30명)이 참가한다.

출발은 장수말역사체험관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제한시간 3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고, 배변과 원주 메달, 반다나, 모바일 기록증 등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기간
장수농업홍보전시관 운영

장수군은 9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기간 동안의 안공원 다목적체육관 내에 장수농업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장수농·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정책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과 수직농장, 사과 다목적 비거림 시설 등을 전시해 미래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보이고, 청년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스마트팜 추진 현황과 장수농업의 비전도 소개한다.

또한 읍·면별 특화품목과 가공상품 전시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뿐 아니라 축산, 국제산과 관광, 생태관광 등 장수의 다양한 자원으로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공간도 운영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수농산물 그리기’ 체험과 농기계 미니 체험존을 마련해 아이들이 농업을 쉽고 즐겁게 접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참여형 공간으로 구성되어 축제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이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성묘객 편의 위해 국유임도 개방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별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 내 국유임도 230여km를 오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물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통행이 제한되어 왔으나, 명절 전후 산림 내 묘소를 찾는 성묘객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임시 개방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